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703-968-3011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웹사이트: <https://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예비자 성지순례

지난 9월 20일(일), 새 신자와 선교부 봉사자 등 35여 명이 워싱턴 D.C.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오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국립성전을 방문해 웅장한 대성전과 지하 성당,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돔과 세계 각국의 성모 경당을 둘러보며 가톨릭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새 신자들은 한인 이민자들이 봉헌한 ‘카나의 한국 성모’와 ‘한국 순교자들의 성모’ 부조를 마주하며 한국 천주교의 깊은 신앙 전통과 미주 한인교회의 발자취에 새삼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성전에서 다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한 뒤, 오후에는 길 건너에 위치한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곳에서 순례단은 예루살렘의 주요 성지를 재현한 공간을 둘러보며 예수님의 탄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의 발자취를 보다 생생하게 되새겼습니다.

함께 순례를 다녀온 새 신자중 한 분께서는 “워싱턴 D.C. 지역에 수십 년간 살면서도 천주교와 관련해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며 “정말 둘러보면 볼수록 경이로움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순례단에게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은 “오늘 성지순례를 통해 천주교 신앙을 더욱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복을 베풀시며 순례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신앙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례단 모두가 무사히 성지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새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인의 모후 Pr.1500차 기념 행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루카 1,46)
지나온 1,500 번의 주일 동안,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촛불을 밝혀온 레지오 마리에 ‘모든 성인의 모후’ 뵈레시디움이 지난 9 월 20 일(일), 본당 신부님과 60여명의 본당 교우분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제 1,500 차 기념 주 회합 및 축하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행사의1부에서는 행동 단원들과 그 배우자들, 협조 단원들, 그리고 초창기 단원들이 함께 1500차 주 회합을 진행하였고,

이어진 2 부 행사에서는 신부님의 격려사와 함께 상급평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기쁨의 오찬을 나누며,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가득히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 소회]

1,500 회라는 숫자는 결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주 기도 자리를 지켜준 단원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준 배우자 분들과 협조단원들, 그리고 늘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은총의 기적’입니다. 지나온 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 선서를 하던 그 순수한 열정으로 성모님과 함께 다시 기쁨의 봉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모든 성인의 모후’ 뵈레시디움은 앞으로도 본당의 기도의 파수꾼이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일꾼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고스 청년회 여름캠프

지난 주말 (9/18- 20), 로고스 청년회 중 12명의 청년들이 본당 보좌신부님과 함께 본당에서 한시간 반 가량의 거리에 위치한 Lake Anna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숙소에 도착하여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시작된 이번 캠프는 청년회와 보좌신부님이 함께하는 첫 캠프였던 만큼 여러가지 친목게임과 신앙활동, 그리고 Lake Anna에서 물놀이 등을 통해 청년들과 보좌신부님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회장단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보좌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금주의 전례상식

한가위 추석 미사, 위령 미사의 모든 것

1. 한가위 명절 미사의 성격과 의무 여부

명절을 앞두고 교우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미사 참례 의무입니다.

- 의무 축일 여부: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한가위(추석)와 설날 미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무 축일(주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례하지 못하더라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중죄는 아닙니다.
- 미사의 지향과 권장: 비록 법적인 의무 축일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결실과 햇곡식에 감사드리고 (감사의 제사),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선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이므로 각 본당에서는 대축일에 준하여 성대하게 미사를 봉헌하며 참례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2. 주교회의 승인 '가톨릭 가정 제례(차례)' 가이드

천주교 가정 제례는 복잡한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복음의 정신 안에서 조상에 대한 효와 감사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상차림 원칙

- 격식 탈피: 전통 유교식의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 등 엄격한 배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구성: 제상 중앙에 십자가를 모시고, 양쪽에 촛불 2자루와 향로를 둡니다. 조상님의 영정 사진이나 이름표(위패)를 단정히 놓습니다.
- 음식 준비: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나 온 가족이 함께 나눌 명절 음식을 정성껏 차리면 충분합니다. (* 상황에 따라 음식을 생략하고 순수 추모 기도상만 차려도 좋습니다.)

Q. 천주교 신자가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에 따르면, 조상에 대한 효성과 존경의 표현으로서의 **2배(큰절 두 번)**는 한국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어른과 선조를 향한 정중한 인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묘소·납골당 성묘 시 바치는 '위령기도(연도)' 요약본

추석 연휴 동안 조상님의 산소나 납골당을 방문할 때 함께 바칠 수 있는 간소한 위령기도 순서입니다.

- 성묘 필수 준비물: 성수(본당에서 담아온 것), 가톨릭 기도서, 성초(화재 위험이 없는 묘역이나 납골당 분향대에서 사용).
- 현장 기도 순서:
- 성호경 및 성수 뿌리기: 묘소나 봉안당 앞에서 성호경을 굿고 무덤(유골함) 둘레에 성수를 뿌립니다.
- 시편 130편(깊은 구렁 속에서):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온 가족이 손을 모으고 소리 내어 바칩니다.
- 마침 간청:
- + 주님, *(고인의 이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주소서.
- + *(고인의 이름)*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가톨릭의 명절 문화는 형식보다 마음의 지향을 우선합니다.

지나친 상차림 부담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하느님의 평화를 나누는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십시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하느님께서 왜 부자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며 그의 목숨을 되찾아 가시려 하십니까? 사실 그가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말이지요. 가령 일꾼들을 무임금으로 부렸다던가, 탈세하였다는 식의 불의한 모습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열심히 일한 만큼 안락과 편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이에 대하여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는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더 큰 공간을 짓고 모든 곡식과 재산을 쌓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소출이 있기까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물을 바칠 것이고, 자신을 도와준 일꾼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며 평소에 주는 품삯에 상여금을 얹어 줄 것입니다. 또 주변 이웃과 친지, 특히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등장한 부자는 탐욕의 노예였기에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눈길이 쏠려 있었습니다.

한가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햇곡식과 햇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 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요약)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교황님 담화문 전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쟁과 빈곤, 폭력과 환경 재난, 그리고 그 밖의 비극적 사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양심을 깊이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 18,5).

모든 어린이, 모든 인간은 무한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궁극적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린이 안에 새겨진 하느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1. 연중 제 26주간 일정 안내

- 9월 27일 (일)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오전 8시, 10시)
 - 바오로회 가정 모임 (오전 11시)
 - 한가위 효도 잔치 (오전 11시 30분)
 - 요한회 모임 (오전 11시 30분)
 - K of C 임원 임명식 (오후 12시)
 - 주일학교 학부모 총회 (오후 3시)
 - CCD/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새단원 오디션 (오후 4시 15분)
 - 베드로회 형제 모임 (오후 8시)
- 9월 29일 (화) : 학생 견진 성사 미사 (저녁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10월 1일 (목) :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 10월 2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미사 (저녁 7시 30분)
- 10월 3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기도 (오전 9시 30분)
, 미사 (오전 11시)
 - 페어팩스 메모리얼 묘지 판매 (오전 10시)

2. 연중 제 27주간 일정 안내

- 10월 4일 (일) : 울뜨레아 야외 행사 (오전 11시 30분)
 - K of C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사랑의 울타리 (오전 11시 30분)
- 10월 9일 (금) : 영어권 형제 모임 (저녁 8시)
- 10월 10일 (토) : 5K 걷기, 달리기 대회 (오전 7시)
 - 유아세례 (오후 2시)

3. 10월 첫주간 전례 안내

- 10월 1일 (목) :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10월 2일 (금)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미사 (저녁 7시 30분)
- 10월 3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기도 (오전 9시 30분) 미사 (오전 11시)

4. 10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10월 2일 (금) 오전 9시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5. 주일학교 학부모 모임과 단체 카톡방 안내

-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3시-4시 15분
- 장소 : 친교실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을 매주 주일 초대합니다. 따뜻한 교제와 차한잔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의 단체 카톡방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6.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안내

-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와 은인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9월 27일 (일) 오전 8시, 10시
- 매 미사 30분 전부터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은인 분들을 기억하며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연도 바치는 동안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K of C 임원 임명식

- 일시 : 9월 27일 (일) 오후 12시
- 장소 : 성전
- 2026-2027회기 K of C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일학교 학부모 총회 안내

- 일시 : 9월 27일 (일) 오후 3시 - 4시
- 장소 : 친교실 A-1,2
- 새 학년도 주일학교 운영에 관한 안내를 위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박예인 헬렌 (703-755-5005)

9. 성모회 판매 안내

- 9월 27일 (일)은 한가위 효도 잔치 음식 준비로 성모회 판매가 없습니다. 신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 올뜨레아 야외 행사

- 일시 : 10월 4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나눔터
- 꾸르실리스타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CCD / 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성가대 : 4학년 - 12학년
 - 관현악 : 7학년 - 12학년
- 일시 : 9월 27일 (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하상관 지하 7번방 (음악 연습실)
- 문의 : 조성민 스테파니아 (703-725-3167)

12. 한가위 효도 잔치

- 한가위를 맞아 본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잔치를 마련합니다. 맛있는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오니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9월 27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오후 2시 30분
- 대상 : 75세 이상
- 하상회, 안나회 회원이 아닌 신자분들은 참석 인원 파악을 위해 친교실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친교실
- 내용 : 점심 식사, 웃음 치료 및 노래방
- 안내 : 9월 하상회와 안나회 월례회의는 효도 잔치로 대체합니다.
- 오늘 행사 후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13. 학생 견진성사 미사 안내

- 일시 : 9월 29일 (화) 저녁 5시 30분
- 알링턴 교구장이신 버비지 주교님의 집전으로 견진성사 미사가 있습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과 학생들의 견진성사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견진 받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견진 성사의 은혜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이날은 견진성사 미사 관계로 저녁 7시 30분 미사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진성사 대상 학생 명단
Abigail Yoo, Benjamin Subini Muldoon, Bradley Kim, Celina Lee, Dominic Shin, Elizabeth Jihyo Shin, Ethan Choi, Hau Johann Kim, Hyojoo Agnes Choi, Ian Choi, Jason D. Hyun, Jaymin Choi, Jinha Kim, Johnpaul Kang, Joo-Ha Lee, Junu Yoo, Justin Lee, Lillian Park, Lucas Kim, Noah Chris, Pio Cho, Thomas Lim, Yuna Cha

14. 꾸르실료 주관 5K 걷기/달리기 대회

- 일시 : 10월 10일 (토) 오전 7시-10시 (아침 식사 제공)
- 장소 : 버크 레이크 공원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4일 (일)까지 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 또는URL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PinKorean.com/5k
- 참가비 : 1인 \$20 / 2인 \$30 / 가족 (3인 이상) \$40
- 이날 참가비는 2027년 WYD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 박기정 라파엘 (703-862-0039)



15. 센터빌 구역 가을 야유회

- 일시 : 10월 11일 (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나눔터
- 센터빌 1반 - 4반 신자들이 함께하는 가을 야유회에 센터빌 구역 모든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6. 생명 존중의 달 및 장애인을 위한 연례 미사

- 알링턴 교구는 생명 존중의 달(Respect Life Month)을 맞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연례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께서 주례하시는 이번 미사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가정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1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
- 미사 후 Burke Hall에서 간단한 다과와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17. 2026년 혼인 기념 미사 (Mass for Marriage Jubilarians)

- 올해 혼인 25주년 또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부부들을 위한 기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 리셉션에서 기념 증서가 배포될 예정이며, 기념미사에 참석하신 부부들은 버비지 주교님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 대상 : 2001년 또는 1976년에 혼인한 부부
- 일시 : 2026년 10월 18일(주일) 오후 2:30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
- 주례 : Bishop Michael Burbidge
- 신청 마감 : 9월 27일 (일)
- 참석을 원하시는 부부는 본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페어팩스 메모리얼 묘지 할인 판매 및 구입 안내

- 일시 : 10월 3일 (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오피스
- 이 날 25%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묘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 묘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 묘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령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의훈 요셉 (703-966-8206)

19. 볼티모어 성당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판매

- 볼티모어 성당 신자분들이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판매를 합니다.
- 미리 주문을 받을 예정이오니 구매하실 분들은 주일 8시, 10시, 2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바랍니다.
- 판매 수익금은 볼티모어 성전 건축 기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9월 20일 (연중 제 25 주일)	
봉헌금 -----	\$7,452.00
교무금 -----	\$7,545.00
교무금 (신용카드) ---	\$7,845.00
감사 헌금 -----	\$250.00
2차 헌금 -----	\$3,470.00
온라인 봉헌 -----	\$3,025.00
합계 -----	\$29,587.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10월 1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0월 2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10월 4일 (일)	오전 6시 - 7시
1. SPC 주일 미사강론	
2. CPBC 가톨릭 뉴스	
3. 철학으로 성경 읽기: 실존적 읽	
4. 목주기도 분심 줄이는 방법	

교중미사 예물봉헌	
9/27 이번주	비엔나 2반
10/4 다음주	스프링필드 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